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ristian Political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Ecumenical Movement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교육의 방향

이은주(Eun Joo Lee)

Abstract

In Korean society, church once witnessed the period of its being considered light and sal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church bestowed Jesus Christ's love to underprivileged neighbors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organized practical participation activitie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Nonetheless, church was sunken into quantitative growth without having qualitative growth. As church was cited as the epicenter of the spreading COVID-19, the image of selfish church has started receiving attention and there has appeared a criticism for immoral church tendency, which brought low trust about church. These things are resulted from church's failure to undertake its role with responsibility, in society. Such as this, church has lost its identity as the model of the Kingdom of God. In such a situation, church needs to remind itself of the enlightenment of the Ecumenical Movement, in order to recover trust and perform its mission. The Ecumenical Movement means accomplishing unification of the universe through a renewed church. This movement is aimed to create the earth as 'where humans can stay' and to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mankind.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olitical activities conducted for responsible participation in the church world and to find the way for church roles in this world. This researcher will attempt to investigate educational methods to help Christians in this world take full responsibility given to them, through an educational discussion about Christianity made in this context. This educational attempt means, in other words, political affairs also.

Key Words

Ecumenical Movement, WCC, Ecumenical Education, Social Responsibility, Christian Political Education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교육의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ristian Political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Ecumenical Movement

이은주(Eun Joo Lee)**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교육, 인권, 민주화, 통일 운동 같은 실천적 사회참여운동으로 동참해왔다. 하지만 질적 성장에 집착하고 교권체제 강화를 위해 기득권과 결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회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이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그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 바로 이 논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회에 정치적 활동으로 책임 있게 참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깨달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정치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논문은 주로 WCC에서 출판된 다양한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활용하는데 먼저 WCC를 중심으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책임 다하기 위해 행한 정치적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육적 논의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시도를 규명한다. 이런 기독교 교육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공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세상을 재발견하고 연대하는 교육,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 셋째, 현실상황에 대한 문제 지향적 교육, 넷째, 정치적 참여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돕는 정치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독교 정치교육이 교육현장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 주제어 〉

에큐메니칼 운동, WCC, 에큐메니칼 교육, 교회, 사회적 책임, 기독교 정치교육

I. 들어가는 말

한때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면서 이 사회를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있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억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지켰고 일제의 침략 시절 민중들이 일제의 탄압 아래 고통 받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과 의료로 봉사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요람의 역할을 함으로써 복음을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였다(오인탁, 2008, 312-313). 이후 독립이 되고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고 민주화운동 가운데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참여 운동을 전개하면서 역사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러한 교회의 활약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신뢰를 받았고, 열정적인 선교활동과 함께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교회는 양적 성장에 지나치게 매몰하였고 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가려는 탐욕으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과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2008, 28-29). 교회가 꽤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해갔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가시적 비판이 폭발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 가운데 교회의 이기성이 드러나면서이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또한 한국 교회의 현주소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갱신을 통해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2년 4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교인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과제를 물어본 결과 교회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섬김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한혜인, 2022). 한국 교인들과 사회가 요청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교권 체제의 강화에 몰입하며 현실 사회에 장벽을 쌓는 교회가 아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하고 사회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살롬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도구로서 동참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동참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사회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요소들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극복하는데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정치학자 아이리스 영(Iris Young)에 따르면 정치적 책임은 '정의를 위해 공유된 책임'인데(이유진, 2014), 이것은 부정의한 사회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그 배후에 놓여있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을 알리고 더 나아가 관행적인 요

소들을 바꾸기 위해 집단적인 관계를 조직하며 다양한 의견의 공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허라금, 2015, 87).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에 침묵하는 불공정한 과정을 극복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판에 직면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운동의 깨달음을 다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상의 분열을 야기했던 교회가 갱신하여 이 세상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의 섬김 운동이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 운동은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한다(Lee, 2015, 69-70).

이 논문은 이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서 특히 교회가 세상을 섬기면서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세상 속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에큐메니칼 문서에 나타난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이루어진 세계 교회들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사회적 참여를 살펴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실현할 수 있는 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육적 논의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시도를 규명한다. 이러한 교육적 시도는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을 지니는지 탐색하려는 것이다.

II.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

1.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태동

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탄압의 대상이었는데 이는 기독교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로마의 집권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긴 기간 동안의 박해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비호 아래 강력한 교권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정치세력과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별히 로마의 권력층들이 기독교에 많이 유입되면서 기독교는 그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지배체제를

견고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에 기독교는 로마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을 왜곡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의 정치적 개입은 교회가 서구 중세시대를 지배하면서 지속되었는데 기독교와 권력층은 상호 지원하면서 그 세력을 견고화해 나갔다. 이러한 기독교의 정치적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건이 종교개혁인데, 이것은 교회의 정치적 결탁과 지배에 대해 저항하면서 교회가 가진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완벽히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교회는 정치 권력층과 결탁했고 제1세계의 식민지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의 변화를 모색하려 시도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에딘버러 선교대회(Edinburgh Missionary Conference)이다.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1910년에 개최되었는데 18,19세기 제1세계 교회들이 제3세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Hunzinger, 2001, 27). 이때의 선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 이전에 제1세계가 제3세계를 착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복 작업 이전에 미리 제1세계에 제3세계에 가서 서구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제1세계의 정복을 용이하게 하려는 역할을 했다. 선교가 제1세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들의 양적 팽창과 교파의 점유경쟁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회에서는 교회의 일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Hunzinger, 2001, 27). 교회에게 이러한 섬김은 정치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바로 교회는 사회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사명도 있음이 천명된 것이다. 이 회의는 교회의 일치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려까지 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세계교회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합의한 대회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의 교회들은 보다 본격적으로 교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 신앙과 직제, 둘째 선교과 전도, 셋째 생활과 봉사이다. 신앙과 직제는 교회의 서로 다른 신앙고백과 직제의 다름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고, 선교는 침략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선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생활과 봉사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측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운동의 흐름이다(VanElderen, 1993, 16-23). 이것은 특별히 세상을 어떻게 교회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고,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활과 봉사 기구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그리스도교 운동’이 1925년 스톡홀름에서 제1회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곳에서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이 이루어졌고, 경제, 정치, 인종 차별 문제, 교육, 전쟁 방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기독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인되었다. 특별히 1930년대 유럽의 전체주의 운동들에 대처하여 파시즘을 반대하며 이에 저항하는 사회 구조를 창출하려고 시도하였다(노재성, 1990, 21). 이러한 생활과 봉사의 측면에서 전개된 논의와 실천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전개된다.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러한 세 흐름이 연합하여 하나의 WCC를 형성하려 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연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다시 세계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세계 평화를 파괴한 전쟁에 관여한 나치의 만행에 교회가 연루되어 있음을 각성하고 세계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함께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한다(VanElderen, 1993, 8-29). 이러한 각성은 바로 세계교회가 하나되어 침략주의적이며 이 세상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파괴적인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구심점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고 이것은 바로 WCC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WCC의 설립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흐름 가운데 먼저 신앙과 직제, 생활과 노동 협의체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졌고, 1961년 개최된 WCC 제3차 뉴델리 총회에 세계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참여함으로써(김동선, 2007, 111) 세 가지 흐름이 완전히 유기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 가운데 특별히 생활과 봉사의 흐름은 WCC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공적인 사회참여와 정치적 행위를 담당한다.

2. WCC를 중심으로 전개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개최된 WCC 제1차 총회는 WCC를 중심으로 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떠한 사회참여와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다. 이 총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참상 속에서 전개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전쟁의 참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이 대회의 주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보다 정치적인 무질서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정치 사회적인 시대적, 범세계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두었다. 이 시기에 이런 주제가 WCC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시대적 배경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밝혔듯이 제2세계 대전이라는 비극이 낳은 인류의 파괴를 직면하고 이 이후 서구 민주주의 사회와 동구 공산주의의 이념적 정치적 도덕적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분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노재성, 199

0, 17-18).

이 총회에서는 또한 ‘책임사회’라는 기독교의 새로운 윤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이 ‘책임사회’란 공공질서와 정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유인 사회이면서 정치적 권위와 경제력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권위나 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표현한다(노재성, 1990, 22-23). 이러한 논의는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사회에 대한 논의는 WCC 제2차 에반스톤 총회에까지 이어졌고 이 대회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독교가 이 양자 이데올로기의 격전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에 WCC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장단점을 이야기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방종과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공산주의는 불공정을 해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한다. 이렇게 양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 후에 WCC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WCC, 1990, 56-57). 구체적으로 제3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WCC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독교가 지닌 정체성을 고민하며 인류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들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책임 있는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WCC는 제3차 총회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WCC가 서구교회 중심의 협의체가 아니라 서구를 넘어선 제3세계의 교회들까지 함께하여 제3세계의 문제를 세계교회의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세계 국가들은 제1세계의 식민 지배하에 있다 정치적으로 독립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식민지배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치적 독립과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민족주의는 타민족에 대해 침략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만 제1세계의 지배로부터 제3세계가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요청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노재성, 1990, 29).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은 1966년 제네바 대회에서 이어졌는데 이 협의회는 교회의 정치 사회참여가 본격적으로 강조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복음이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회가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동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독교의 사회참여, 세속사회와 문화 속에서 인간

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 사회, 경제, 인종문제 등을 지닌 세상에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노재성, 1990, 37-38).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1968년 WCC의 공식신학이 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논의가 절정에 달하면서 다양한 사회학적 통찰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회적 책임이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박경수, 2012, 153). 산업화와 제1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억압으로 비인간화가 계속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된 것이다.

1973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WCC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보다 심화되어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에 교회의 책임이 있음이 인식되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부정의와 불평등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Paton, 1975, 100-113). 이런 논의의 맥락 아래에서 WCC는 “정의롭고, 참여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1977-79) 프로그램을, 제6차 뱅쿠버 총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과제로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1990년 서울에서 JPIC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에 교회의 책임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이 일에 교회가 참여할 것을 격려한다(박경수, 2012, 153). 이러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통해서 이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요청되었고 이는 세계교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실천의 방향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의 WCC 총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 세계교회의 새로운 사명으로 인식되었는데 1991년도 캔버라에서 개최된 WCC 제7차 총회에서는 “성령이여, 오소서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에서 보여지 듯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에 주목하여 생명이 보존되기 위한 미래사회와 이를 위해 요청되는 정치·경제·사회 및 생태학적 구조변혁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교회들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박경수, 2012, 156). 1998년 WCC 제8차 짐바브웨 총회에서는 세계 경제의 부정의로 인해 발생한 세계화의 문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Wilkens, 1998, 243). 이후 2006년 제9차 WCC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라는 주제

로 개최되는데 이 대회는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 폭력적 분쟁, 고통의 상황과 다문화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민족, 인종의 갈등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이러한 흐름은 WCC 제10차 부산대회와 제11차 칼스루 총회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WCC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유지하는 것과 관계성을 지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교회들은 정치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감당했던 것이다.

III.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에큐메니칼 교육

1. WCC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에큐메니칼 교육

위에서 밝혔듯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땅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세계교회의 일치된 움직임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운데 하나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메시지에 기초한 교육이다. 일찍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태동과 함께 이러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가지 흐름, 즉 신앙과 직제, 생활과 봉사, 선교와 전도 안에서 다양하게 실천되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생활과 봉사의 방향성 아래에서 이루어진 에큐메니칼 교육은 이 세상의 분열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그 교육적 성격은 당연히 사회 참여적 성격을 지닌 정치교육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교육적 시도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초라고 인식되는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때의 주요 관심사는 ‘기독교화와 관련된 교육문제’(Education in relation to the Christianization)였다(The Staff of the Office of Education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1, 8).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는 주요기관인 WCC가 설립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첫 총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 전개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앙고백이 이루어졌다. 특별히 이러한 무질서를 양산한 원인으로 전쟁을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차단할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가운데 제시된 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국제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WCC, 1993, 67). 하나님의 뜻에 따

라 평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이 확대된 것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영향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앙 고백 아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신학적 방향인데 이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한 과업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상에서 복음을 구체화하며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의 모색이 제시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의 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Hooft, 1955, 169-170). 평신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정치적 판단과 실천을 통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세계선교협의회가 WCC와 합류하고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재기되었던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WCC의 공식신학으로 인정받은 이후 WCC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기독교교육을 통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1966년 ‘교회와 사회 위원회’의 주관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경제개발을 위하여 ‘교육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된 것이 이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경제문제에 관한 기독교신앙과 윤리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신학교육, 둘째 세계경제의 상호관련성들과 구조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경제교육, 셋째 국가 및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적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정치교육, 넷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적 개발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사회교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ÖRK, 1967, 146). 이러한 논의는 교육이 교회 안에서 교인을 양성하는 것에 그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위기들을 극복함으로써 이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후 WCC와 세계기독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제3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WCC 제4차 읍살라 총회에서 제3세계의 문제는 교육의 실패라고 언급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WCC, 1970, 7). 이러한 흐름 속에서 WCC에 조직된 교육국의 연구를 걸쳐 1970년 ‘교육전체’라는 표제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국제협의회가 개최되었다(The Staff of the Office of Education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1, 15-16). 제3세계 교육자들이 모인 이 회의의 주제는 ‘세계 교육의 위기와 교회의 기여’였다. 특별히 이 회의는 브라질에서 문맹퇴치를 하면서 ‘의식화 교육’을 했던 WCC 교육고문 파울로 프레이리의 영향 아래 진행되었다(The Staff of the Office of Education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1, 75).

이 회의 이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WCC 아래 ‘교육과 갱신’ 분과가 생성되었다. 이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형성된 에큐메니칼 행동 분야(Division of Ecumenical Action)는 어떤 한계 없이 청년, 여성과 남성들, 평신도가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 교회를 넘어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과 갱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분과는 특별히 어린이들, 청년과 성인들의 기독교적 양육을 현대 사회에서의 삶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발달시키고 비형식적인 과정들을 도모하였다(Johnson, 1975, 182-183). 이때도 파울로 프레이리의 영향 아래 침묵 속에서 복종하도록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자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Nipkow, 1978, 141). 억압의 시대적 분위기가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육적 전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곧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구조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해방교육으로 설정하도록 했고 이러한 방안으로서 ‘에큐메니칼 신학 교육’이 연구과제로서 제시되었다. 어린이들도 성서공부를 통해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세례 받은 기독교인들이 성숙한 제자로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도 신학교육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학교육은 단순히 신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오늘의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실천할지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덧붙여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그들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국가적 구조적 영향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들의 해방의 복음에 적합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통찰과 행위를 위한 신학적, 윤리적, 영적 교육이 요청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Johnson, 1975, 206).

이런 흐름 가운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WCC 총회 제4분과에서 “해방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는 먼저 기독교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해방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교육은 인류 공동체의 해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배와 제의가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Paton, 1976, 91). 기독교교육이 교회에서 예배와 제의를 위한 훈련만을 위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해방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부정의와 억압의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행동하고, 타종교를 지니거나 신앙이 없는 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Paton, 1976, 94-95).

또한 이것들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프로그램 자원들을 지원하고, 군사주의의 위협성에 대해 의식화하도록 도움으로 평화를 위해 교육하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연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Paton, 1976, 95-96). WCC 제5차 나이로비 총회의 교육과 갱신 분과에서 에큐메니칼 토론과 예언자적 실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어진 깨달음을 공동체에서 구체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 것이다. 이후 WCC의 교육 분과는 교육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 목적을 ‘교회와 사회가 요청하는 것들을 예민하게 반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십 발달을 위해 신학교육, 기독교교육, 더 나아가 일반교육의 영역에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WCC, 1983, 181). 교육 분과는 에큐메니칼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은 교회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교육 분과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 에큐메니칼 학습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책임,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의미, 분열된 세상에서의 인류의 일치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WCC, 1983, 182-183). 또한 성서 연구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성서 연구도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성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상황에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이를 위해 성서연구 단기 훈련과정들, 장기 훈련과정 등 다양한 성서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WCC, 1983, 187).

이러한 흐름 속에서 WCC 제6차 총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의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세계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지구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데 참여하는 것, 이 공동체에서 예언자적 증언을 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적 목표임이 확인되었다. 이 분과에서의 논의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예배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이 총회는 ‘예배하는 총회’라는 부제가 붙어있을 정도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히 예배의 목적을 예배로부터 얻은 신앙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 속에서 섬기고 실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덧붙여 이러한 예배와 삶의 일치를 위한 예배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Gill, 1983, 95-96). 또한 개교회에서의 학습의 방향에 대한 제안들 속에서 각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로부터 배우고 그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정의와 평화를 세상 속에서 이루는 과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Gill, 1983, 100).

밴쿠버 총회 이후 WCC의 교육과 갱신 분과에서는 ‘에큐메니칼 학습’과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학습’을 중요 교육적 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밴쿠버 총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과제로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제시된 것에 따라 이

루어졌다(Best, 1990, 206-207).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가운데 ‘성인 기초 교육’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영향 아래 억압받는 성인들이 이 사회의 변혁에 동참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그룹과 협력하면서 성인들의 평생 교육을 도우려고 시도한다(Best, 1990, 208).

WCC 제7차 캔버라 총회는 인류에게 직면한 새로운 위기, 즉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제2분과에서 “생명의 수여자 너희의 창조세계를 보전하라”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 정의가 세계적으로 위기임을, 전 지구가 생태적 위기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지구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배우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한다(Kinnamon, 1991, 55). 이를 위해 생태학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흐름 아래 구체적으로 인간이 청지기직을 책임 있게 인식하여 창조물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함에 감사하며 교화와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생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에 대해 세심하게 대응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적 논쟁에 참여하고 연구할 것을 제시했다(Kinnamon, 1991, 68-69).

WCC 제8차 총회에서는 다원화된 사회를 맞이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과제는 다원화된 상황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함께 했던 세미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종교인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 필요한 교수자료를 발굴하는 기독교교육을 실천 사례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Salatiga) 국제세미나에서 제시되었다(Wilkens, 1999, 82).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양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세계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주제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참여에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정치적인 행위도 수반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에큐메니칼 교육도 다양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적 시도는 신앙과 삶의 분리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실마리들을 제시해준다.

2.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에큐메니칼 학습론

에큐메니칼 운동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WCC 내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한 에큐메니

칼 운동의 메시지의 실현이 있음을 위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실천의 형태이지 학문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데 WCC 내에서 교육의 책임자로 참여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학습'이라는 학문의 형태가 구체화되었다. 에큐메니칼 학습 안에서도 교회의 세상 속에서의 구체적 행동과 정치적 역할의 임무를 인식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에큐메니칼 학습을 처음 시도한 에른스트 랑에(Ernst Lange)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교회는 세상의 분열을 야기하는 구속과 억압에 저항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Lange, 1980, 159). 교권체제의 유지와 양적 확장에 매몰된 교회에 대해 비판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랑에는 에큐메니칼 경험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양심을 지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윤응진, 2003, 269-270). 랑에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형성하도록 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뉘코(Karl Ernst Nipkow)도 WCC에서 교육을 담당하면서 에큐메니칼적 차원에서 학문의 형성을 시도한다. 뉘코도 랑에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에큐메니칼적 가치를 추구하는 역할을 확인하면서 그 교회가 에큐메니칼 학습을 실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학습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 자체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교회 역할은 바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본다(이항명, 2001, 122-134). 뉘코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의 실천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로 하여금 정치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뉘코는 이렇게 현실 상황에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서 텍스트를 그대로 전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제 지향적 교육을 제안한다(이항명, 2001, 90-91).

이후 WCC 제6차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학습에 대해서 세계교회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WCC에 교육의 책임자로 참여했던 소수의 학자들의 논의를 넘어서 더 많은 세계교회에서 에큐메니칼 학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독일교회협의회(EKD)는 1985년 *Ökumenisches lernen: Grundlagen und impulse*를 출판하면서 에큐메니칼 학습을 독일의 교회 안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다. 이 책에서 에큐메니칼 학습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리 문답서 암기교육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제시된다(EKD, 1985, 16). 특히 에큐메니칼 학습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일하는 것에 참여하고,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개방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향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에큐메니칼 학습은 교회 안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동참하고 이런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열고 교류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에큐메니칼 학습의 특성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됨을 지향하는 학습, 신앙과 삶의 일치를 지향하는 학습, 사회적이면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학습, 영성을 지니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도록 촉구하는 학습으로 제시했다(EKD, 1985, 17). 이러한 에큐메니칼 학습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에큐메니칼 학습은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위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학습인 것이다. 에큐메니칼 학습은 바로 개인적 영성을 넘어서서 세상의 분열을 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통해 인류의 공존을 위해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에큐메니칼 학습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개방되어 있고 함께 공통의 관심에 참여하는 능력,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는 능력, 이웃들과 함께 연대성을 지니고 구체적인 실천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Ziebertz, 1995, 183). 에큐메니칼 학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부정의에 대해 함께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학습에 대한 공론화는 보다 많은 기독교교육학자들이 에큐메니칼 학습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게 했다. 그 중 고쓰만(Klaus Goßmann)은 WCC의 세 가지 흐름, 즉 선교와 전도, 신앙과 직제, 생활과 실천에 상응하는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생활과 실천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윤리적-정치적’ 동기를 지닌 에큐메니칼 학습의 과제를 제시한다(Piepel, 1993, 197). 이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의 세계 안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지는 바로 ‘사회윤리적-정치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기에 따르는 에큐메니칼 학습은 다양한 문제 앞에서 올바른 사회 윤리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도록 돕는 과제가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1990년 이후 다원화된 사회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에큐메니칼 학습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오르트(Gottfried Orth)는

에큐메니칼 학습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종교와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öking-Bortfeldt, 1994, 229).

학문으로서의 에큐메니칼 학습도 다양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적 요청에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학습론이 아직 체계화된 학문의 형태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삶의 자리에 공공성을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IV.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

에큐메니칼 운동은 19세기 선교지에서 교회들과 교파들이 교회의 확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 동기로 인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교회의 일치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가 참여하는 운동이며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참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성격에 따라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부정의하고 분열되어 있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에큐메니칼 교육은 이러한 실천 운동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에큐메니칼 교육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부정의, 폭력, 평화 부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생태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속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기독교 교육의 이런 역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교육은 정치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교육활동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데, 기독교 교육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적 영성은 우리의 삶을 사랑(agape)로 이끄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사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이웃과 함께 공동체에 현재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그룸, 1983, 57-58). 이런 성격을 지니는 기독교 교육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에 동참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사

회의 부정의한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내포한다. 이미 밝혔듯이 정치적 책임은 ‘정의를 위해 공유된 책임’인데 이웃사랑을 위해 사회 속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은 바로 정치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 나라에 대립하고 있는 비평화적이고 부정의한 사회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것들을 공론하고, 이러한 것들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이웃사랑과 분열을 극복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이런 역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세상을 재발견하고 연대하는 교육

성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볼보면 함께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인간들에게 요청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자손을 번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해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로 이어진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살림이 이루어진 나라이며 예수는 로마의 억압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이후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파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갔다. 바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에서도 지속되었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반하여 이 세상 곳곳에서 구체적인 예수의 복음의 실현을 이룩하기보다 지배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모습으로 변질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왜곡된 것이다.

또한 2세기 이단 종교가 출현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곡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러 이단 종교 가운데 특별히 존재론적 이원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Gnosticism)는 신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존재이며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라고 본다(채위, 1974, 93).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서 속의 신앙고백과 달리 세상을 더럽고 극복해야 할 곳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과 무관한 분으로 분리시킨다. 이런 맥락 아래 영지주의는 인간이 육체, 정신, 영혼으로 분리되어있다고 보고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보며 이 육체에 감금된 영혼은 오직 ‘영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본다. 그 구원은 바로 본향을 향한다는 것이다(채위, 1974, 96-97). 이러한 영지주의의 신, 세상, 구원에 대한 이해를 수용한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예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에서 벗어나 본향을 향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함을 파괴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에 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외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재발견한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에큐메니칼’은 그리스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의미를 담고 있다(이형기, 1994, 257). 이러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는 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러한 ‘에큐메니칼’의 어원을 수용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을 이루어왔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운동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이 세상의 문제에 어떻게 책임 있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로 하여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바로 ‘오이쿠메네’, 즉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는 교육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 세상이 지닌 의미와 이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왜 요청되는지 인식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 사명을 주셨음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전하고 돌보는 사명을 주셨음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료 인간들과 연대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윤응진, 2010, 365-369). 이 땅에 함께 거주하는 인간들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책임성을 일깨우는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요청되는 것이다(김도일, 2020, 67).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류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더불어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선물을 잘 수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의 지속가능성과 인류의 공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독일의

신학자 골비치는 산업혁명 이후 견고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에 있다고 본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살림이 완성되는 반면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류 공동체를 공멸로 몰아간다고 지적한다(Gollwitzer, 1992, 110).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데 이 이윤을 최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도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남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형태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힘 있는 기득권과 패권을 지닌 사람들 의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해진다. 강자에 의한 힘의 추구 과정 속에서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평화 부재의 상황을 초래하며 인류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류가 공존하는 땅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고 이에 따라서 일찍이 인류 공동체를 공존을 파괴하는 전쟁과 인종, 민족, 국가, 언어, 성과 같은 요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더 나아가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자본주의로 인해 형성된 다양한 문제들이 인류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전쟁과 차별과도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요소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하나된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시도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WCC 제5차 나이로비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세계교회들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의 문제에 세계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일찍이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신선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보다 위협받는지 상황 속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고 오히려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교육적 주제이다.

일찍이 이 문제에 에큐메니칼 교육이 관심을 가진 이유도 바로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에큐메니칼 교육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독교의 교권체제의 강화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 교리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교육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다양한 현상과 원인들을 분석하고 생명의 위기 전체에 저항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류삼준, 2021, 363). 이러한 책임적 사회 참여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삶을 선택하는 문제는 바로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이 요청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바로 책임 있는 정치적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의 요청되는 것이다.

3. 현실상황에 대한 문제 지향적 교육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현실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그 현실 상황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이 요청된다. 이러한 기독교교육은 성서 텍스트에 담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또는 그 복음을 학습자의 실존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교육, 교리를 주입하는 교육과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음과 교리를 전달함으로써 학습자의 삶과 분리될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주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실마리를 성서에서 찾으려 하는 문제 지향적 교육은 개인에 대한 실존적 해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 혹은 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윤응진, 2010, 93).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지향적 기독교교육을 전개할 때 고려야할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이향명, 2001, 95-97).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서는 바로 현재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읽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주제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데 여기에는 기독교적 삶의 형태 및 비기독교적 삶의 형태로 포함된다.

넷째, 교사는 오늘날 인간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 현실상황의 주제들에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 지향적 기독교 교육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먼저 학습자가 처해 있는 현실상황을 다양한 시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그들의 처해있는 현실상황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문제들을 함유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의 지식의 도움을 받아 현실상황이 지니고 있는 문제

점들과 원인들을 분석해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실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그 이전에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실상황에 대한 달라진 이해를 식별할 수 있고, 이는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적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치적 참여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살롬이 완성된 나라이다.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롬, 즉 완전한 의미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일찍이 “평화의 나무는 정의에 뿌리박혀있다”고 선언하면서 평화와 정의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인식했고, 더 나아가 생태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정의, 평화 부재 상황, 생태계 파괴의 문제, 더 나아가 차별과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에 나선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은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도와 예배, 성서공부를 통해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돕는 훈련이 요청된다. 이러한 훈련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함께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공동체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과 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축하하는 축하잔치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 교육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청된다. 흠어지는 교회로서 지니는 기독교교육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프락시스 실천운동의 모습을 지닌다.

이를 위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장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김성중, 2020. 56). 더 나아가 이것은 정치적 참여를 동반하는데, 이것은 교권의 이해관계를 획득하기 위해 기독교와 결탁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들에 저항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삶과 일치시

키려는 시도로서 이권 사회적 참여로서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는 반진운동, 부정의와 결탁함으로 이 세상의 분열을 야기하는 기업의 불매운동 같은 것이 있고 반민주적이고 기득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려 시도하는 정치가에 대한 항의 등도 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부정의와 평화부재로 인해 고통당하는 약자와 사회공동체를 위한 입법 활동 등도 전개할 수 있다(해리스, 1997, 181-186) 이러한 행위들은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들 따르려는 신앙에 따른 것이다. 곧 정치적 참여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인 것이다.

V.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류에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인류는 이 ‘땅’을 제대로 가꾸지 못해 이 ‘땅’은 이곳을 잘 가꾸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더불어 공존할 것 점점 거주하기 힘든 곳이 되어버리고 있다. 3년여 동안 지구공동체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 바이러스의 여파로 발생한 문제들로 지구공동체는 다양한 고통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 사회 관계망에서 소외된 자들이 늘어났고, 경제적 어려움, 의료적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유재덕, 2021, 12).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무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다했는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의 고통에 함께 연대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상 속에 책임 있게 참여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공동체성 상실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심화로 이어지기 때문에(홍성수, 2021, 290) 이것은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도출하며 고립된 교권체제의 유지에만 집중한 모습에 사회로부터 비판이 몰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러한 교회의 갱신과 새로워진 교회가 이 세상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세상에서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분열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했던 교회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참여하고 섬길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을 세상을 재발견하고 연대하는 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 현실상황에 대한 문제 지향적 교육, 정치적 참여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시도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독교 정치교육의 방향만 제시한 것에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김도일 (2020).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4, 51-79.
- [Kim. D. I. (2020).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ducation in Korea*, 64, 51-70.]
- 김동선(편) (2007).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5년 출판)
- [Kim. D. S. (Ed). (2005).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성중 (2020). 코로나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Education in Korea*, 63, 39-64.]
- 노재상 (1990). **WCC와 현실정치**. 서울: 나눔사.
- [Nho, J. S. (1990). *WCC and real politics*. Seoul: Nanumsa.]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편) (2008).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Ecumenical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08). *Ecumeincal Movement of Korean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류삼준 (2021). '생명 위기'의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7, 339-375.
- [Ryu. S. J. (2021).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Journal of Education in Korea*, 67, 339-375.]
- 박경수(편) (2012). **에큐메니즘 A에서 Z까지**.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 [Park. K. S. (Ed). (2012). *Ecumenism from A to Z*.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오인탁 외 (2008).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한교.
- [Oh, I. K . (Ed). (2008).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Kidok Hankyo.]
- 유재택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8, 11-40.
- [Yu. J. D. (2021). Christian Education and the Post Coronavirus Era. *Journal of Education in Korea*, 68, 11-40.]
- 윤용진 (2003). 에큐메니칼 학습론. **말씀과 교회**, 34, 262-287.
- [Yun. Y. J. (2003). The Theory of Ecumeincal Learning. *The Word and The Church*, 34, 262-287.
- 윤용진 (2010). **기독교 교육신학II**. 서울: 기독한교.
- [Yun. E. J. (2010).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Kidok Hankyo.
- 이유진 (2014. 1. 12). "정치적 책임에 대하여". **한겨레 신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9365.html>에서 인출.
- [Lee. Y. J. (2014. 1. 12). "On Political Responsibility" *Hankyoreh Newspaper* from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9365.html>
- 이향명 (2001). **상황중심의 기독교교육**.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 [Lee. H. M. (2001). *Christian Education centered on Situation*. Osan: Publishing House Hanshin University.]
- 이형기 (1994). **에큐메니칼 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Lee. H. K. (1994). *History of Ecumeincal Movement*.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채 위 (1974). 영지주의 종교사상. **기독교사상**, 194, 85-105.
- [Chae. Y. (1974). Religious thought of Gnosticism. *Christian Thought*, 194, 85-105.
- 한혜연 (2022. 10. 26). "종교개혁 505주년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해야".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839366>에서 인출.
- Han. H. Y. (2022. 10. 26). "The 505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Korean churches must restore publicity".

- Nocutnews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5839366>
- 홍성수 (2021). 신자유주의 이후 생명 위기와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기독교교육논총*, 67, 267-299.
- [Hong, S. S. (2021). Roles of Christian Education for Restoring Life Crisis after Neo-Liberalism. *Journal of Education in Korea*, 63, 267-299.]
- 허라금 (2015). 위험 시대 '재난'과 정치적 책임. *철학연구*, 108, 71-92.
- [Huh, R. K. (2015). Conceptualization of the 'Disasters' in Age of Risk and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Philosophical Study*, 108, 71-92.]
- Best, T. F. (Ed.). (1990). *Vancouver to Canberra 1983-1990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o the Seventh Assembly*.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 Bröking-Bortfeldt, M. (1994). *Mündig Ökumene lernen. Ökumenisches lernen als religionspädagogisches Paradigma*. Oldenburg: Isensee Verlag.
- EKD. (Ed.). (1985). *Ökumenisches lernen: Grundlagen und impulse*. Gütersloher: Gütersloher Verlagshaus.
- Gill, D. (Ed.). (1983). *Gathered for Life*.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 Gollwitzer, H. (1992). **자본주의 혁명**. 윤용진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원저 1974 출판)
- [Gollwitzer, H. (1992). *Die Kapitalistischen Revolution*(Y. J. Yun. Trans). Cheon an: The institute of Korean Theology.]
- Groome, T. H. (1983).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0년)
- [Groome, T. H. (1983).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K. M. Lee. Trans).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Harris, M. (1997).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9년 출판)
- [Harris, M. (1997).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and the church*(Y. S. Ko. Trans).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Hooft, W. A. V. (1993). **세계교회협의회 기원과 형성**.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7년 출판)
- [Hooft, W. A. V. (1993). *The Genesis Format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H. K. Rhee. Trans).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Hooft, W. A. V. (Ed.). (1955). *The Evanston report: The secon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54*. London: SCM Press LTD.
- Hunzinger, Christa D. (2001). *Ökumene erfahren und leben*. Güterloh: Güterloh Verlagshaus.
- Johnson, D. E. (Ed.). (1975). *Uppsala to Nairobi 1968-1975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Fif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New York: Friendship Press.
- Kinnamon, M. (Ed.). (1991). *Signs of the Sprit officiaal Report. Seventh Assembly Canberra, Australia, 7-20 February 1991*.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 Klaus, W. (Ed.). (1999). *Gemeinsam auf dem Weg. Offiziell Bericht der Achten Vollversammlung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Harare 1998*. Frankfurt am Main: Lembeck.
- Lange, E. (1980). *Sprachschule für die Freiheit*. München: Kaiser.
- Lee, E. J. (2015).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the Ecumenical Movement. *Journal of Education in Korea*, 41, 61-90.
- Nipkow, K. E. (1978). Alienation Liberation, Community-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WCC before and after Nairobi. *Ecumenical Review*, 30, 139-154.
- ÖRK. (Ed.). (1967). *Appell an die Kirchen der Welt: Dokumente der Weltkonferenz für Kirchen und Gesellschaft*. Stuttgart: Ökumenischen Rat der Kirchen.
- Paton, D. M. (Ed.). (1976).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The Official Report of the Fifth Assembly of the World*

- Council of Churches, Nairobi, 23 November-10 December, 1975.*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 Piepel, K. (1993). *Lerngemeinschaft Weltkirche. Lernprozesse in Partnerschaften zwischen Christian der Ersten und der Dritten Welt.* Aachen: Misereor.
- The Staff of the Office of Education World Council of Churches. (Ed.). (1971). *Seeing Education Whole.* Geneva: WCC.
- VanElderen, M. (1993). **세계교회협의회 40년사.**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8 출판)
- [VanElderen, M. (1993). *And So Set up Sings...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first 40 years*(H. K. Rhee. Trans).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WCC(편). (1990). **역대총회종합보고서.**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WCC. (Ed). (1993). *The Section Report Of the WCC-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H. K. T. Rhee. Trans.).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WCC. (Ed.). (1983). *Nairobi to Vancouver 1975-1983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ittee to Churches.*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 Wilkens, K. (Ed.). (1999). *Gemeinsam auf dem Weg. Offizieller Bericht der Achten Vollversammlung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Harare 1998.* Lembeck: Frankfurt am Main.
- Ziebertz, H. G. (Ed.). (1995). *Bilanz der Religionspädagogik.* Düsseldorf: Patmos